

“한국 배우들 매력적…언젠간 함께 작업하고 싶어”

15년간 독립영화 외길서 영광 얻어
日 정부 축하 안한 것? 상관없다
강동원·류준열·배두나 매력 넘쳐

“영화를 만들 때마다 ‘말’을 거는 상대가 있다. 그 상대의 얼굴을 떠올리며 작품을 만든다. 이번 영화에서는 아이였다.”

영화 ‘어느 가족’으로 올해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56)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긴 이번 영화는 피가 섞이지 않은 여섯 명의 가족이 한집에 모여 사는 이야기.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과 다른, 두 아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란 화두를 꺼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주류 사회의 시선도 담아낸다.

국내 개봉에 맞춰 내한한 감독은 30일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작게 낳아서 길고 오래 잘 키우는 마음으로 모든 작품을 만들어왔다. 15년간 일본에서 독립영화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한결 같이 온 덕분에 이런 (수상)결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느 가족’은 할머니의 연금과 도둑질로 생계를 잇는 가족의 이야기다. 작품을 구상하던 무렵 감독이 본 신문기사가 강력한 모티브가 됐다. 부모가 죽었는데도 연금을 노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가 불합리한 실화였다. 이 사건은 실제 일본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때문에 ‘어느 가족’은 단순히 가족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사회의 문제까지 파고든다.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화를 두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감독에게 아베 총리가 축하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일본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감독은 선을 그었다. 간담회 전 “영화 이외의 질문을 자체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을 정도. 하지만 관련한 물음이 재차 나오자 감독은 “정부가 (수상)축하 마음을 표하는 건 영화 본질과 그다지 상관없는 문제”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일본 국회에서 영화가 정쟁 소재가 되는 것도 편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독은 영화가 사회 이슈와

맞물려 해석되는 상황은 “관객의 몫”이라고 열어뒀다. “‘어느 가족’은 가족 드라마라기보다 가족 밖, 가족과 사회가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마찰에 주목했다. 여러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한 게 가족이라는 자체를 가졌다”고도 덧붙였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 감독의 영화는 국내서 꾸준히 사랑받았다. 26일 개봉한 ‘어느 가족’ 역시 다양성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상영 5일 만에 4만 관객을 넘어섰다. 일본에선 이미 300만을 돌파했다.

이제 그는 더 넓은 무대로 향한다. 곧 프랑스로 건너가 배우 에단 호크, 줄리엣 비노쉬 등과 함께 프랑스 영화를 촬영한다. 역시 가족 이야기다. 일본을 벗어나 영화를 찍기는 처음인 그는 “만약 프랑스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면 한국에서도 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동원, 배두나, 류준열 등과 교류하는 그는 “매력적인 한국 배우들과 작업할 미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사과는 패스…‘알코올 스캔들’ 윤제문, 혹시 얼렁뚱땅 복귀?

작년 음주운전에 취중 인터뷰 물의
‘아무일 없었’ 올해 제천음악제 참여
개봉 앞둔 영화 ‘상류사회’ 불뚱 우려

여론은 뒷전이라는 행보다. 관객과 공감하려는 의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연이은 ‘알코올 스캔들’로 논란을 만든 배우 윤제문이 얼렁뚱땅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도 관객과 가장 가깝게 만나 소통하는 자리인 영화제를 통해서다. 동시에 출연한 영화 개봉까지 앞뒀다. 불과 1년 전 자신이 만든 알코올 스캔들은 마치 없던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다.

윤제문은 8월9일 개막하는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초반 메인 행사로 10일 열리는 ‘원 썸머 나잇’에 스페셜 큐

레이터로 참여한다. 배우 박해일, 수애와 함께 무대에 올라 음악과 아티스트를 소개한다.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다할 사과나 해명, 대중과의 교감 과정을 생략해 대담한 ‘셀프 사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제문은 2016년 8월 음주운전 살인이 웃에 걸려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2010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였다.

음주운전 여파는 컸다. 윤제문이 주연한 영화 ‘아빠는 딸’은 개봉을 미뤄야했



윤제문

다. 배우 개인의 미숙한 자기관리가 영화에 사활을 건 제작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지만, 이후 그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작년 4월 ‘아빠는 딸’을 소개하는 인터뷰 자리에서 전날 먹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이른바 ‘숙취 인터뷰’를 진행하다 결국 인터뷰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윤제문은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아빠는 딸’의 개봉 지연이 자신의 알코올 스캔들 탓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개봉을 앞두고 “누를 끼쳐 면목이 없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사과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뒤 또 다시 ‘숙취 인터뷰’ 소동을 벌였다. 심지어 술 취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한 취재진과 마찰을 빚고 돌연 예정된 인터뷰 약속을 스스로 보이콧했다. 경력

20년 베테랑 배우의 행동이라고 하기에 믿기 어려운 아마추어 행태가 두고두고 없는 피해를 줬지만, 이후 그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작년 4월 ‘아빠는 딸’을 소개하는 인터뷰 자리에서 전날 먹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이른바 ‘숙취 인터뷰’를 진행하다 결국 인터뷰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론을 간과한 윤제문의 일련의 행보가 8월29일 개봉하는 ‘상류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에서 형성된 이른바 ‘넷심’이 영화 흥행을 결정짓는 요소로 통하는 상황에서 윤제문의 존재가 작품에 크든 작든 여파를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제문은 지난해 ‘육자’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당시엔 스치듯 지나가는 배역이어서 관객이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상류사회’에서는 영화 메시지를 상징하는 핵심인물이란 사실에서 그의 알코올 스캔들이 만들 여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리 기자

#해시태그 킷



박선영 아나 “하정우는 옴프파탈”

배우 하정우와 박선영 아나운서의 어색한 만남이다. 30일 오전 하정우가 영화 ‘신과함께:인과 연’ 홍보차 SBS 파워FM ‘박선영의 시네타운’에 출연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색한 듯 포즈를 취해 웃음을 자아낸다. 박 아나운서는 “비주얼부터 입담까지 다 갖춘 옴프파탈 하정우”라고 그가 가진 매력을 소개했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하정우 #박선영 #어색한인증상

내마음에 작품하나

■ ‘갯세븐’ 진영·소설 ‘소년이 온다’

5·18의 먹먹한 아픔 함께 하는건 우리 몫

소설 ‘소년이 온다’. 제 목만 보면 그저 한 소년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첫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가슴이 저릿해지는 건, 그 시대 아픔을 직접 겪지 않아도



누구나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 갯세븐의 진영도 마찬가지다. 그는 ‘소년이 온다’의 마지막 장을 덮고, 주저없이 “내 인생의 책”으로 꼽았다. 자신이 태어나기 불과 14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니 가슴이 더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다.

‘소년이 온다’는 소설가 한강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로 1980년 5월18일부터 열흘간 벌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진압되는 과정과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사는지 처절하게 그려낸다. 작가 특유의 정교한 문장은 마치 그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듯 생성한다.

“교과서나 TV에 나오는 정도가 아는 내용의 전부라,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크게 와 닿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고 고백한 진영은 책으로 그 참혹한 현장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저려왔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이렇게 큰 비극을 겪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일을 겪은 분들과 가족, 그분들의 심정을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조금이나마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을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며,

이정연 기자



워너원

워너원 1주년 D-7…팬들 ‘이벤트 총공격’ 준비 완료

기부·광고·랩핑버스·전시회까지
개별 팬덤 경쟁하듯 이벤트 준비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데뷔 1주년을 앞두고 팬들의 ‘이벤트 총공’이 이뤄지고 있다.

워너원의 데뷔일인 8월7일이 다가오면서 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며 축하하고 나섰다. 워너원은 ‘국민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팬들이 직접 멤버를 선정한 팀인 만큼 멤버 개개인의 팬덤 역시 막강하다. 멤버들의 개별 팬덤이 마치 경쟁하듯 이벤트를 진행하는 점도 흥미롭다. 또한 활동기간이 정해진 ‘시한부 그룹’이라는 한계를 넘어 그동안 팬클럽 문화에서 볼 수 있

는 이벤트가 모두 모였다. 기부, 광고, 랩핑버스, 전시회 등 역대 최고의 축하이벤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다니엘 팬카페 ‘다니엘닷컴’은 최근 강다니엘의 고향인 부산의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120대의 선풍기를 전달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후원증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고, 강다니엘과 그의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지훈과 이대휘의 개인 팬들 역시 데뷔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부금을 잇달아 전달하고 있다. 박지훈 팬카페 ‘형광길만견지훈’ 측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365만원을 (사)사랑의 달팽이 측에 기부했고, 장애아동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금액을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이나 문구류 생활용품도 전달했다.

이대휘의 팬카페 ‘달라잇’ 측은 환아 치료를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앞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단체와 후원복지관에서 발달장애 환우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워너원 멤버들의 데뷔 1주년을 더욱 뜻 깊은 날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개별 팬들은 서울시내 버스 및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진동벨 뿐만 아니라 팬들이 소장한 사진을 전시하는 전시회까지 다양한 이벤트로 축하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몬스타엑스, 美TV에 뜬다

NBC ‘엑세스 할리우드’ 초청 받아

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 지상파 인기 연예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몬스타엑스가 미국 NBC ‘엑세스 할리우드’ 초청을 받아 최근 스튜디오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엑세스 할리우드’는 1996년 전파를 타기 시작한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인기프로그램으로, 한 주간의 유명인 소식을 다룬다.

몬스타엑스는 ‘엑세스 할리우드’ 녹화에 참여해 3월 발표한 앨범 ‘더 커넥트’를 비롯해 다채로운 음악 이야기와 미국 투어의 뒷이야기 등을 들려줬다. 앞서 몬스타엑스는 현지 인기 아침토코쇼 FOX5 ‘굿데이 뉴욕’ 생방송에 출연해 주목받은 바 있다. 멤버 아이엠은 유력 일간지 시카고트리뷴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현재 몬스타엑스는 ‘2018 몬스타엑스 월드투어 더 커넥트 인 미국’이란 이름으로 투어를 진행 중이다. 20일 시카고에서 시작된 투어는 뉴욕, 애틀랜타 등 미국 7개 도시를 순회한다.

이정연 기자